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어려움, 파주시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모두가 힘이 듭니다.

지친 시민의 삶과 죽어가는 서민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시민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경기도, 파주시는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연일 언론에서는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아동양육 지원금 등
지원책마다 대상, 조건, 지원방법 등이 제각각이다보니
정작 우리집은 어디에 해당 되는 건지,
얼마를, 어떻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줄 압니다.

파주시는 시민 모두가 좀 더 쉽게 코로나19 관련 지원책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코로나19 지원대책 Q&A’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우선, 전 시민에게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 나이에 상관없이 파주시민이라면 모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 과 “파주형 긴급 생활지원금 [10만원] ”이 지급됩니다.

2.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만7세미만 아동 양육가정에는

“아동양육(한시)지원 [아동 1인당 40만원 아이돌봄 쿠폰] 이 지급됩니다.

3. 코로나19로 생계 등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소득하위 70% 이하라면,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 소득하위
70% 이하(직장 가입자 4인가구 기준 23만7천원, 지역가입자 25만4천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4인기준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2)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는 “코로나 19 긴급복지제도”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소득, 재산, 금융재산기준이 모두 충족 할 때 (4인가구의 경우 가구전체 소득이 356만원, 재산 1억6천만원,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지원대상이 되며, 4인기준으로 월 123만원, 3회 지급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을 받습니다.
‘20.3월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급여자격과 가구원수에 따라 40만원에서 192만원까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4. 파주시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였습니다.

1) “파주형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은 매출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당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2019년 매출액 10억미만, 전년대비 월평균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사업장 및 집주소 모두 파주)에게 업체당 백만원을 지급합니다.

2) 담보가 없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최대 5천만원의 대출을 지원하고,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이자차액을 보전**합니다.

5. 아울러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3억원 이내의 특례보증 및 운전자금 이자차액 등 **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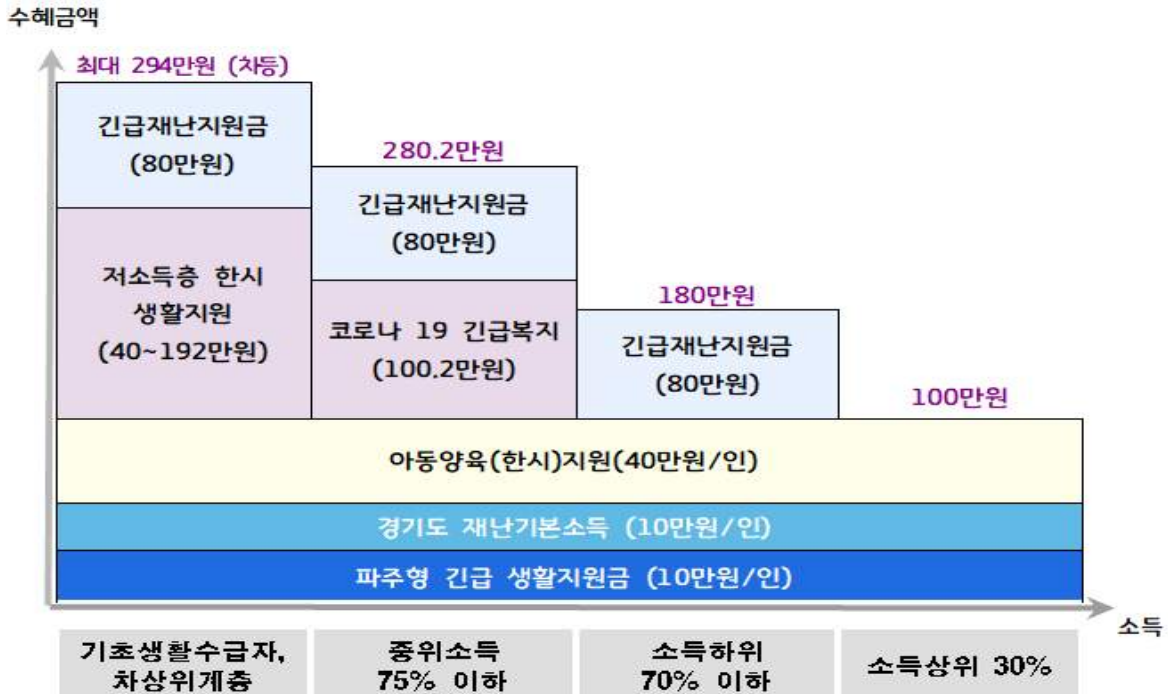
6. 이외에도 코로나 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을 위한 긴급운영비**, **농어업인을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사업** 등이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Q&A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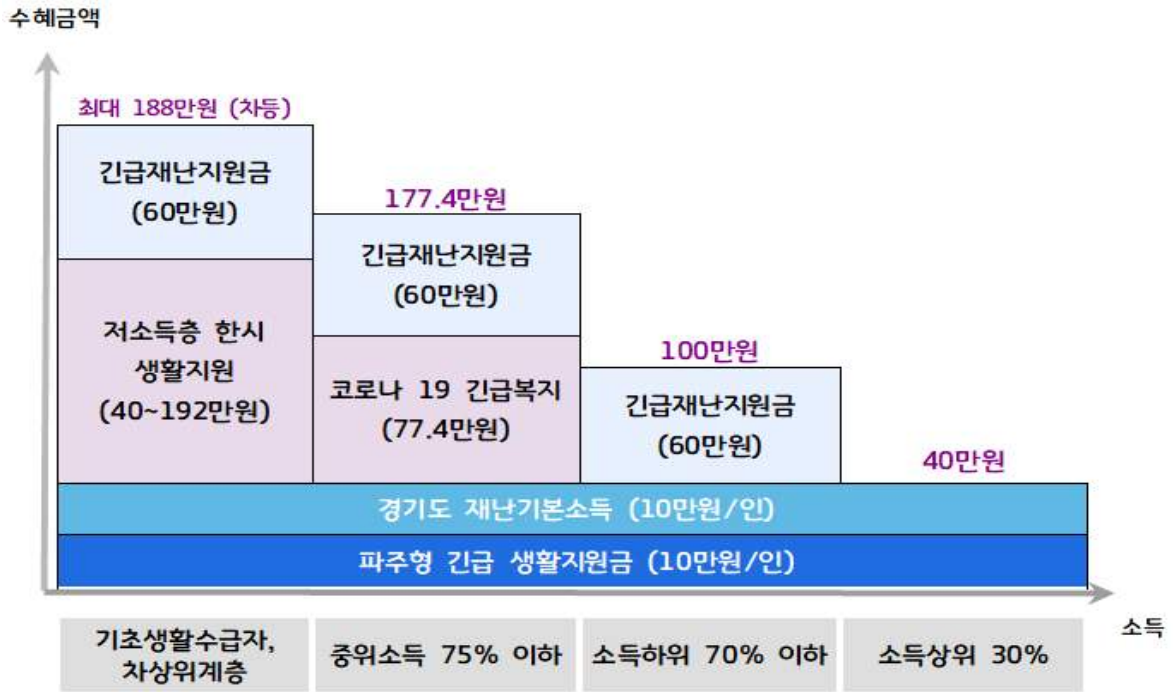
※4인가구 지원 예시 (부모, 만7세미만 아동2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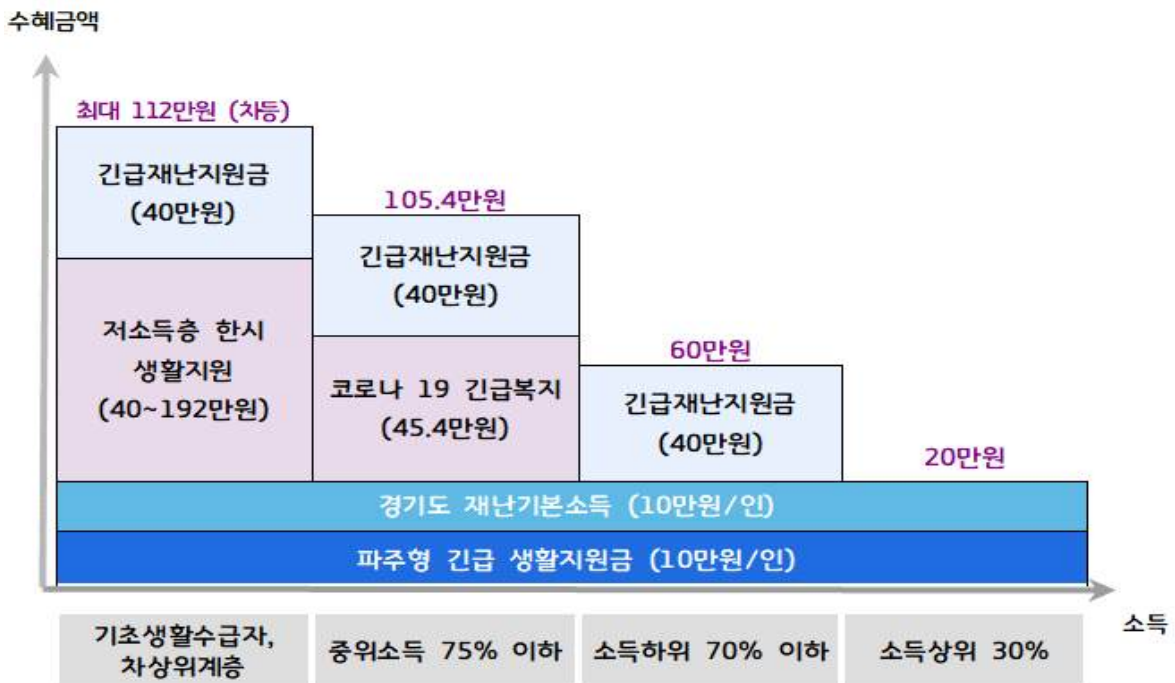
※3인가구 지원 예시(부모, 만7세미만 아동1인)



※ 2인가구 지원 예시(부부 2인)



※ 1인가구 지원 예시 (성인 1인)



1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 전반 (기획예산과 예산팀)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지역 내 감염자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파주시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시민 여러분을 지원합니다.

1 규모와 주요내용은?

- ☞ 위기계층 긴급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675억원을 편성했고, 여기에 '파주형 긴급 생활지원금' 454억원을 추가로 담아 총 1,12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습니다.
- ☞ ①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711억원 ② 피해업종 회복지원에 386억원 ③ 방역체계 강화와 예방에 32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추가로 '파주형 긴급 생활지원금'을 담은 이유는?

Q&A

- ☞ 파주시는 67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파주시의회에 사전 제출했습니다.
- ☞ 당초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기본적인 삶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긴급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 ☞ 하지만 의회에 사전 제출 이후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고, 경기도 내 여러 시군이 5~10만원 씩 추가 지급의사를 밝혔습니다.
- ☞ 또한, 파주시의회의 건의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원하는 시민들의 추가 지급 요구가 컸습니다.
- ☞ 이러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각계각층의 시민, 전문가들과 끊임없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 ☞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효과를 극대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동시에,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책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 따라서 과감하고도 신속하게 '파주형 긴급 생활지원금' 도입을 결정하고 454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기타문의

- 파주시 기획예산과 예산팀 (☎031-940-4068, 940-4061~4066)

2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 파주형 긴급 생활지원금 재원 마련방법 [기획예산과 예산팀]

Q&A

- ☞ 많은 분들이 '긴급 생활지원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겁니다.
- ☞ '파주형 긴급 생활지원금'은 모든 시민에게 10만원 씩 지원하기 위해 454억원을 편성했으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씩 지원하기 위해 330억원을 편성하며 총 784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됩니다.
- ☞ 우리시와 유사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특정 목적 재원을 전용하고 있습니다.
- ☞ 지자체 마다 재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전용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 ☞ 우리 파주시는 그 간 재정사업 사전협의와 재정 올인원 프로세스 제도를 시행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 ☞ 그 결과 시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아껴 써왔고, 이러한 재원을 '파주형 긴급 생활지원금'에 투입하며 모두가 어렵고,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향후, 추가 지원대책(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세출구조 조정 실시와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 기타문의

- 파주시 기획예산과 예산팀 (☎031-940-4068, 940-4061~4066)